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

사퇴카약인 정광민으로 연구사

박사 오병철

조국통일은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고 통일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민족의 분렬로 하여 겨레가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가시기 위하여 나서는 민족지상의 최대과업입니다. 반세기를 훨씬 넘는 우리 조국의 분렬력사는 나라의 분렬은 예측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로 된다는 철리를 새겨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지상의 최대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애국애족의 리념과 조국통일사상이 구현된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입니다.

부강한 통일조국에서 온 겨레가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입니다.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겨레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남달리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며 겨레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은 통일위업수행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하여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고있습니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자주통일국가의 실현방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는데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이 우리 겨레의 자주적지향을 철저히 구현한 통일강령으로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은 또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려는 겨레의 념원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온 겨레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화목하게 살아가려는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면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 누구나 바라는 지향이며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원칙과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련방제형식의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정치적, 지역적, 계급적리익을 초월하여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습니다. 이처럼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은 외세가 쌓아놓은 인위적인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 민족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며 하나의 민족으로 평화적으로 살아갈수 있는 밝은 앞길을 열어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됩니다.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은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부강번영의 앞길을 밝혀주는 통일강령입니다.

민족의 부강번영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이나 지니고있는 강렬한 지향입니다.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하여 굴종과 분렬의 비극을 겪어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통일된 부강조국을 건설하는것은 커다란 민족적숙원이며 념원입니다.

조국통일 3 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이 제시한 원칙과 방안,강령들은 어느것이나 민족을 흥하게 하는 전략과 구체적방도들로 일관되어있습니다. 특히 공존, 공영, 공리를 단결의 원칙으로 제시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련방제형식의 통일국가형성을 예견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북남공동선언들은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이후에도 북과 남의 정신적 및 물질적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민족적번영을 도모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명시하고있습니다.

조국통일 3 대헌장과 그것을 구현한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리론인것으로 하여 지난 기간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6.15 북남공동선언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운동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민족공동의 대강, 투쟁의 기치인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6.15 시대의 장엄한 화폭을 펼쳐놓았습니다.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민족공동의 통일애국리념으로, 민족운명개척의 기치로 받아들이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이 땅에 거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열풍을 몰아왔습니다.

2001년 6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돐을 맞으며 금강산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와 2001년 8월 15일 북, 남, 해외의 3자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한 민족통일대축전, 특히 당국대표단의 참가하에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서울, 광주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하여 북과 남, 해외의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이 평양과 금강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진행한 대규모의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는 10여차례에 달합니다.

또한 5.1절을 맞으며 금강산과 평양, 남조선의 창원에서 진행된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북남로동자들의 통일대회를 비롯하여 농민, 청년학생, 여성, 학자, 언론인, 문학인, 종교인들의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 토론회들이 수십차례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통일행사들에서 발표된 선언문, 호소문, 성명 등 공동문건들에서는 한결같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결의들이 채택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운동이 명실공히 전민족적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겨레의 민족자주의식을 비상히 높이고 통일운동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반미반외세투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002년 6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두 녀중학생학살사건을 계기로 남조선 전역에서 폭발한 대중적인 반미초불시위를 비롯하여 지난 10여년간 거족적범위에서 더욱 세차게 전개된 투쟁들에서는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 지배를 종식시키고 핵전쟁책동과 무력증강,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습니다.

6.15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고 끊어진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이으며 통일대화를 활성화시키는 등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왔습니다.

2000년 9월 남조선의 철창속에서 신념과 의지를 지켜싸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긴것은 6.15가 안아온 하나의 일대 사변이었습니다.

2000년 8월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우리의 대규모선수단과 응원단이 부산과 대구에 나가 온 남녘땅을 뒤흔들어놓은것을 비롯하여 우리 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과 남조선 《KBS》 교향악단과 《MBC》 공연단의 평양방문공연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된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통일대회와 공동행사들은 우리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력사와 문화도 하나이며 갈라져살수 없는 단일민족임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남녘의 동포들이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수천명이나 북을 다녀갔고 남조선의 한 여성이 평양산원에서 딸을 낳은 기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남사이에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고 수십년간 끊어져있던 도로와 철도가 이어지는 꿈같은 현실도 펼쳐졌습니다.

외세와 남조선보수세력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건설이 추진되고 금강산관광길이 열리어 수많은 남녘동포들이 민족의 명산을 보고싶은 자기들의 소원을 풀고 통일의지를 더욱 가다듬었습니다.

참으로 6.15의 기치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과 그과정에 이룩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현실들은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때 반드시 겨레의 숙원인 자주통일도 민족번영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날들은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남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성취할수 없다는 교훈도 새겨주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리명박역적패당의 출현은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리명박역적패당은 2008년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자마자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에 전면배치되는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와 북남관계발전에 차단봉을 드리웠습니다.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겨온 리명박역도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내든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압살하기 위해 떠들어온 《선택포기》론의 남조선판으로서 명백히 동족과 대화하고 협력하려는것이 아니라 대결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입니다.

현실적으로 리명박역적패당이 《대북정책》을 들고나온후 북남대화과 협력은 전면적으로 파탄되었고 군사적긴장상태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보수패당은 그 무슨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운운하고 《퍼주기》니,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니 하는따위의 나발까지 붙어대며 북남대화과 협력의 문을 완전히 닫아댔습니다. 그로하여 6.15 이후 관례화되어온 북남당국사이의 대화과 협력은 중단되었고 지어 민간단체들사이의 대화과 접촉도 사사건건 차단되었습니다. 북남협력사업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이 끝장난것은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같은것을 들고나와 북남협력의 길에 높은 장벽을 쌓아놓았으며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2010년 5월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한편 그 무슨 《급변사태》나발을 집요하게 붙어대며 《비상통치계획》이니, 《통일대계탐색연구》니 하는따위의 체제대결각본들을 짜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광분하였습니다. 동족과의 대화과 협력을 반대하면서 그것을 모조리 파탄시킨 괴뢰패당의 책동으로 하여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이미 사라지고 군사적대결기운만이 날로 고조되고있습니다.

이미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자마자 군사교리를 《대북억제》로부터 《대북선제공격》으로 바꾼 리명박패당은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북침선제공격능력을 부단히 강화하였고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12》를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각본들도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더욱 모험적인것으로 보충완성하였으며 조선서해 5개 섬을

비롯한 참여한 지역들에 군사력을 증강배치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소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보수패당은 또한 《지난 10 년간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떠벌이면서 《주적》개념을 부활시키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습니다. 사실 《주적》개념의 부활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직접적표현이며 대결전쟁기도의 뚜렷한 발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주적》으로 대하면서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 보수패당의 책동이야말로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날로 더욱 첨예화시키는 근원입니다.

최근 리명박일당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은 위협계선을 넘어 이제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폭로된바와 같이 우리의 태양절경축행사와 조선소년단창립 66 뚝 경축행사를 악랄하게 증상모독하여 내외를 경악케 한 역적패당이 얼마전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파괴암해책동을 꾀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적발분쇄된 리명박일당의 특대형테로사건은 반역도당의 《체제통일》야망이 얼마나 무모한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립증해주고있습니다.

리명박패당의 특대형파괴암해책동은 군사적개입의 구실을 마련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리명박일당이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반공화국도발소동의 본질은 체제대결이며 그 목적은 북침전쟁입니다. 괴뢰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시 미국과 함께 대규모적인 무력개입으로 선제공격을 단행한 후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습니다.

미제와 리명박괴뢰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려보려고 특대형국가정치테로범죄에 매달리는것도 모자라 지난 6.25 침략전쟁때처럼 추종국가군사인원들까지 끌어들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과 같은 북침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사실은 미제와 괴뢰패당의 《체제통일》야망이 극한점에 도달하였다는것을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조성된 사태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 구현인 북남공동선언을 백지화하면서 반통일대결책동에 기승을 부리는 반역무리들을 깨끗이 없애버려야만 민족이 바라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은 《체제통일》과 전쟁열에 들뜬 안팎의 반통일분렬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있습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약 내외반통일세력이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끝끝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시면서 우리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통일의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 락월한 령도에 의하여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이 걸음마마 분쇄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은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입니다.

참으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해나가는것이야말로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 길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입니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 구현인 북남공동선언을 통일에국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할것입니다.